



「문화의 세계화는 향토문화 창달에서」

하 동 문 화 원

수 신 : 수신자 참조(읍. 면장)

경 유 :

제 목 : “하동을 빛낸 100년 인물사 발간” 검토 자료 협조 요청

1. 하동군 13개 읍. 면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동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하동을 빛낸 100년 인물사” 발간 사업이 약 2년간 자료 발굴 및 정리 끝에, 드디어 발간을 앞둔 마지막 자료 검토 및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해 하동군 13개 읍. 면 인물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오니, 읍. 면장님께서 마을 이장회의 시 또는 해당 인물의 직계 후손, 문중에 공고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검토하시어, 하동문화원 E-mail 또는 전화(884-3929)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검토내용

1. 인물의 선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해당 인물의 직계 후손 및 문중 사람들의 이의 여부 확인.
 3. 인물의 추가 有/無 확인 및 추천.
 4. 검토 및 자료제출기간 : 2022년 7월 25일 까지
 5. 편찬위원회 총무 연락처 : 강동의 010-3562-7979 / kang8835971@naver.com
- #참고 : 검토 및 추가발굴은 아래의 ‘인물 선정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계각층 선정기준

- 조선 구한말에서 근대 하동 출신이면서 대한민국, 하동을 빛낸 사람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큰 업적을 남긴 인물 (하동 출생이 아니더라도 40년 이상 거주한 자)
- 근대 : 1850년 ~ 1957년까지(65세 이상)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인물.
- 정치 : 군수, 국회의원, 도지사.
- 경제 : 하동 출신 기업가 (대한민국 경제에 공헌한 자)
- 사회 : 봉사자, 유공자, 의학, 교육자
 - 각 마을 별 열녀문, 충렬문, 효자문 100년 이상 된 문화
 - ※ 사회적 덕망이 있거나 향토 지역민에게 본이 되는 자
- 문화 : 문화, 체육, 예술적으로 업적이 풍부한 인물
 - (체육부문 : 국제대회 및 아시안 게임 이상에서 입상(동매달 이상)을 한 자.
대한민국 대표 예술인)
- 문. 무관 : 장군
- 행정, 사법 등 (차관급 이상)
-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최초 연구자 및 개발자 논문 발표자.
- 일제강점기(친일파 제외).
 - 독립운동가 등 읍면지 인물편을 참고로 하되, 1980년 이후 각 읍면지 자료를 검토

하 동 문 화 원 장 강 태 진

하동문화원편찬위원회 위장장 김삼주



수신자 :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횡천면, 고전면,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사무과장 황 해 속

사무국장 이 지 은

원장 강 태 진

시행 하문 제2022-39호 (2022. 07. 12.) 접수

우 52327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전화 055)884-3929 전송 055)884-3923 / <http://hadong.kccf.or.kr/> hdmunhwa@hanmail.net

하동을 빛낸 100년 인물사 발간 자료(고전면)

분야	연번	성명	구분	주소	기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1	정공채	시인	고전면 성평리	
	2	정두수	작사가	고전면 성평리	
행정	1	김석수	최초 국무총리	고전면	대법관
	2	김기재	행자부장관	고전면	국회의원. 부산시장
하동 군수					
교육					
법					
의학	1	김석권	동아대 의학박사	고전면	최초 성전환 수술
봉사					
하동 독립 선언문 낭독					
독립 유공자	1	박영목		고전면 성천리	
	2	이경호		고전면 성천리	
	3	정상정		고전면 성천리	
	4	이종인		고전면 성천리	
의병 독립 유공자					

군장성					
명인					
농·수산					
향교	1	정한효	향교 - 전교	고전면	
경제					
사학자	1	남호성	사학자(하동읍성)	고전면	
기업인					
종교					
독립운동					
관광					
건축					

하동을 빛낸 100년 인물사 발간 자료

 **하동문화원**

- 정공채(鄭孔采) -



- 호 : 성촌(星村)
- 생 몰 : 1934년 ~ 2008년
- 출생지 :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 학 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등 단 : 1957년 현대문학에 시 '종이 운다'
- 수 상 : 2004 제41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상 외 1건

【생애 활동】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1934년 12월 22일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에서 태어나 네 살 때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1945년 부산진초등학교 5학년 때 진주로 이사하여 진주농림중학교와 진주농림고등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였다. 고교 시절 학원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여서는 제1회 연세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일찍이 청년 문사로서 문재(文才)를 떨쳤다.

1958년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 일보』 기자로 입사하였다. 같은 해 『현대 문학』 4월호에 시인 박두진(朴斗鎭)의 추천을 받아 시 「하늘과 아들」로 등단하였다. 1950년대 말 정공채는 '천의무봉의 시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을 만큼 전후파(戰後派) 특유의 도시적 감성으로 실존적 고독과 고뇌를 노래하였다. 1960년 학원사 기자, 문화방송국 제1기 프로듀서를 거쳐 하동중학교 교사가 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시기에 정공채는 『국제 신보』 편집국장이었던 이병주(李炳注)와 동향이라는 연고로 1960년 4월 14일자 『국제 신보』 1면에 혁명 시 「하늘이여」를 게재하여 혁명의 열기를 북돋웠다.

1961년 진보 언론 매체인 『민족 일보』의 기자로 옮겼고, 1963년 『현실』, 『시단(詩壇)』의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1963년 『현대 문학』 12월호에 발표한 장시 「미팔군의 차」는 반미주의를 표방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발표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일본 신문 잡지들이 번역, 소개한 후에 뒤늦게 논란에 휩싸여 정공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자 한 정공채의 시 정신과 사회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중앙 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1978~1987년 현대시인협회 부회장, 1982~1986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1998년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2008년 4월 30일 75세로 서울아산병원에서 별세하였다. 선생의 묘는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금오영당 공원묘지에 있다. 또한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고전면에 정공채, 정두수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며, 매년 4월 <정공채 시인 추모 달빛낭송회>가 하동문인들의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주요작품

시집『정공채 시집 있습니까』[유림사, 1979], 『해점(海店)』[관동출판사, 1981], 『아리랑』[오상사, 1986], 『사람 소리』[평야, 1989], 『미8군의 차』[인문당, 1990], 『땅에 글을 쓰다』[신원문화사, 1990], 『새로운 우수(憂愁)』[제3의문학, 2000] 등이 있다. 사후에 『정공채 시 전집』[제3의문학, 2008]이 나왔다. 수필집 『지금 청춘(靑春)』[신여원, 1979]과 『비에 젖읍시다』[야실사, 1980], 역사 소설 『대초한지(大楚漢志)』[대가출판사, 1980], 평전 『아! 전해린』[문학예술사, 1982], 『우리 노천명』[대가출판사, 1983] 외 많은 작품을 남겼다.

상훈

1959년 제5회 현대 문학상, 1979년 제4회 시 문학상, 1981년 제1회 한국문학협회상, 1998년 제8회 편운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 제41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상, 2005년 제7회 설송 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2001년 12월 27일 국립 3·15 민주 묘지에 3·15 의거 기념 시비, 2008년 4월 19일 하동읍 섬호정 문학 공원에 「찬불이하동가(燦不二河東歌)」 시비가 세워졌다.

- 정두수(정두채) -



- . 본 명: 정두채
- . 생몰 : 1937년 ~ 2016년
- . 학력 : 서라벌예술대학교 졸업
- . 경력 : 작사가. 시인
- . 대표 작사 : <물레방아 도는데>

【생애 활동】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1937년 4월 18일에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에서 태어났다. 어린 적 부모님을 따라 부산으로 이사한 뒤,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61년 국민재건운동본부가 주최한 시 현상 공모에서 '공장'이라는 제목으로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이후 친형인 정공채 시인과 상의한 결과 한 형제가 같은 일을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하여, 작사가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1962년 한국방송에서 실시한 '건전가요 가사 공모'에 '즐거운 여름'이 당선되어 작사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963년 가요 '덕수궁 돌담길'로 대중가요 작사가로 데뷔했다. 이후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남진의 '가슴 아프게',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 정훈희의 '그 사람 바보야',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점' 남진의 '우수.' 여운의 '과거는 흘러갔다.' 들고양이의 '마음 약해서' 등 주옥같은 우리말로 모두 3,500여 곡을 작사하였다.

특히 가수 나훈아가 불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물레방아 도는데'란 작시는, 어린 때 일제에 의해 학병으로 끌려가던 삼촌이 마을 앞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던 모습이 눈에 선하여 작사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선생이 작사하고, 박춘석이 작곡, 가수 이미자가 불러 유명해진 노래 '흑산도 아가씨'는 1965년 육영수 여사가 흑산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쓴 노랫말이었다고도 한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창작에 대한 열의를 놓지 않았으며, 유작으로 '작심삼일'과 '자존심'을 남겼다. 작곡가 겸 가수 '정음'의 정두수 헌정곡인 '섬진강19번도로'라는 노랫말에 정두수 선생께서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3곳에 정두수선생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2015년 8월 14일에 갑작스럽게 쓰러진 그는 뇌경색판정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폐렴 등의 합병증

으로 1년간을 더 투병하다 2016년 8월 13일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선생의 묘는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에 있는 공원묘원 '금오영당'에 친형인 정공채 시인의 곁에 묻혔다. 선생의 고향인 하동군 고전면에는 정공채, 정두수 기념관이 있으며, 매년 하동군의 후원으로 '정두수 가요제'가 개최되고 있다.

주요작품

<물레방아 도는데> - 나훈아. <흑산도 아가씨> - 이미자. <우수> - 남진
<시오리 술밭길> - 진송남. <가슴아프게> - 남진. <황혼의 부르스> - 이미자.
<삼백리 한려수도> - 이미자. <마음약해서> - 들고양이 등 3,500여 곡이 있다.

저서

시집으로 『하동포구 이야기』 등 있다.

상훈

1969년, 1971년 방송 가요대상 작사상, 대한민국예술대상, 한국문화예술상, 하동군민상 등을 수상하였다.

- 김석수(金碩洙)-



- . 생년: 1932년 11월 20일. 경남 하동
- . 본관: 김녕
- . 소속: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 .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 . 경력: 2013~2017 연세대 이사장 외8건
- . 수상: 199년 창조근정훈장

【생애 활동】

본관은 김녕金寧이다. 1932년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에서 태어났다. 배재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1963년부터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치며 법관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1991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9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법관이자 관료의 길을 걷던 중,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한동 국무총리가 사임한 후, 장상, 장대환 후보가 국회인준을 받지 못하고 연거푸 낙마하자 총리직 장기공백을 우려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동의에 무난한 후보자를 물색하던 중 관료형이자 영남사람인 김석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가 210표, 부 31표로 통과, 인준되어 대한민국 제34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국민의 정부 임기말이었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짧은 기간의 국무총리를 역임했지만, 2003년 예산안 처리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였다. 이에 대한 김석수 총리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이며 무리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2월 26일 후임 고건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자 총리직에서 퇴임하였다. 2007년에는 제1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한국적인 양형기준을 만들겠다.”며 취임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2013년 4월 25일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연세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하동군을 고향으로 둔 김석수 전 총리는 행정력과 지도력을 두루 겸비하였으며, 신사형 인품과 서민적인 면모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변호사

연세대학교 이사장(2013년~2017년)

상훈

청조근정훈장 - 1997년

- 김기재(金杞載)-



- . 생년 : 1946년 9월 6일
- . 소속 : 제15대회의원(부산해운대·기장을)신한국당
제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천년민주당
- . 학력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대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동국대 행정학
박사,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 역임,

【활동 사항】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1946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진주사범학교,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동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25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부산시청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김영삼 정부 때 최형우 내무부 장관 아래에서 차관보로 근무하면서 1995년의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주도하였고, 관선 부산광역시장, 총무처 장관을 역임하였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2] 이후 신한국당 원내부총무를 역임하였다. 1998년 의원직을 사퇴하고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에게 1.69%P(20,926표)차로 석패하였다.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였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이인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지만 정작 이인제는 탈당한 후, 노무현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를 요구했으며, 노무현이 단일 후보로 확정된 후에는 부산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에도 참여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4년 2월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 연제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출마하지 않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공직자 생활에 이어 정치인, 장관을 지내며 치열한 현대사를 관통하며 내달렸던 그의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인지, 홀연히 중국으로 떠난 후 7년을 중국에 머무르면서 베이징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중 발전촉진협회 회장을 맡기도 하였으나, 정치에는 별다른 활동 없이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다.

부산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재부하동향우회'의 결속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까지도 고향 하동의 크고 작은 많은 행사에 앞장서서 참여하면서 어떻게 고향 하동을 도울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다.

주요경력

안양시장. 부산광역시장(관선)

총무처 장관

제15대 국회의원(부산해운대, 기장을)- 신한국당

제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새천년 민주당

행정자치부 장관

국제대학교 석좌 교수

상훈

대통령 공로표창

녹조근정훈장

저서

『행정혁명의 시대』

- 김석권(金碩權)-



- . 출 생 : 1952년 4월 9일
- . 출생지 : 경남 하동군 고전면
- . 학 력 : 부산대학교 의과대
- . 소 속 : 2005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등
- 수상이력 :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공로상 등 다수

【생애 활동】

1952년 하동군 고전면에서 태어났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졸업(의학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주임교수 및 동아대학교 의료원 성형외과 과장,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객원교수,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연구원, 구순구개열 환아를 위한 스마일회 창립, 대한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회장,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밖에도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 와인 칼럼니스트 활동과 더불어 240여 편의 논문을 썼다. 1986년 당시 성형외과 의사로서 국내 최초로 성전환 수술에 성공 후 트랜스젠더 하리수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350여 명을 집도한 성전환 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명의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취미 삼아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관현악단'을 창단하였으며, 폐에 좋다는 이유로 성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허나 아마추어 뛰어넘는 수준급 실력으로 독창무대를 개최하였고, 서예문인화 개인전, 2008년 수필 등단 및 와인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김석권 원장은 2006년 세계 3대 인명기관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주관의 '올해 세계100대 과학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예술과 의학을 넘나들며 서예와 각종 미술대전 수상 등 경력이 광범위하고 화려하다. 그는 정년퇴임을 기념하며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성악 독창회'를,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김석권의 와인세계', 출판기념회와 서예·문인화 '개인전시회'를 연달아 개최하였다. 2017년 6월에는 고향인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김석권 서화전'을 열기도 하였다.

주요경력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회장,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장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 초대작가
한국 시화협회 추천작가

상훈

저서

『김석권의 와인세계』

- 박영묵(朴永默)¹

- . 생 몰 : 1881 ~ ?
- . 출생지: 하동군 고전면 성천
- . 주요경력 : 3.1만세운동 주도. 항일 <일신단 >조직
경성고법 2년6월 확정, 복역. 건국훈장 애족장

【생애 활동】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1881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16일 선생은 성천리 지소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지역에서 동지 33인을 규합하여 <일신단>을 조직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제에 맞서 싸우자.”고 결의하였다. 일신단원 정재기 선생이 하동읍으로 가서 ‘독립선언서’를 가져오던 중 체포되었다. 이에 선생은 일제가 만세시위 계획을 눈치 채고 경계를 더욱 강화하자 거사일을 변경하였다. 선생을 비롯한 일신단원들은 만세시위를 배다리 장날로 정하고 지계를 지거나 농사용 모자를 쓴 장꾼으로 가장하여 시장으로 모여들었다.

마침내 박영묵 선생이 큰 태극기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가 오늘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만세를 삼창하니 나머지 단원들과 장꾼들이 이에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니 그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군중들의 함성이 드높고 그 수가 점차 불어나자 일경과 왜 헌병 5명이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려하자 일신단 단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총과 칼을 빼앗고 군복을 벗긴 뒤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시위대는 총기를 빼앗고 병졸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열기가 점점 고조되었으나, 일제는 수비대를 강화하여 해산시켰다.

다음날 오전 일제는 헌병 20여 명, 일경 10여 명을 동원하여 총을 난사하며 지소마을로 들이닥쳤다. 이에 일신단은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뒷산으로 피신시킨 후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서 박영묵, 정상정, 이종익, 정의용 선생 등이 앞으로 나서며 이르기를 “어제 만세시위는 우리 4인이 주동이 되어서 한 일이니 우리를 체포하라.”며 스스로 포박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선생은 일제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정부는 선생의 뜻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지역의 주민들 역시 “3.1운동 의거 기념비”를 세워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 있다.

주요경력

항일단체 <일신단> 결성 주도

배드리 장터 만세시위 주도

일제에 의해 2년6개월 복역



고전면 3.1운동의거기념비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1990년

- 이경호(李璟鎬) -



- . 생 몰 : 1890 ~ 1920
- . 출생지 :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 주요경력 : 3. 1만세운동 주도
- 징역 3월 복역 중 순국
-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생애 활동】

본관은 합천陝川이다. 1890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농은農隱이다. 향리에서 한학에 몰두하고 있던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하였다고 한다. “항일 투쟁”, “일본 타도”라는 글을 써서 벽에 붙여두고선 일본에의 적개심을 고취하던 중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중국 북경으로 이주하여 6년을 거주하였다. 귀국 후 1919년 3월 하동군 양보면 일신학교一新學校 교사 정섬기鄭暹基, 정성기鄭成基, 정이백鄭伊伯 등과 의논하기를 하동읍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3월 22일 태극기 수백 장을 만들어 인근 지역에 배포하며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튿날인 3월 23일 하동장터에서 선생과 애국 청년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우렁차게 외치자 장꾼 800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합세하였다. 태극기와 만세물결이 드높아지자 출동한 일경들은 주동자들을 체포하여 하동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은 선생은 일경의 가혹한 고문을 견디며 진주감옥으로 이송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의 법정에서 일제 판사가 “앞으로 충실한 황국신민이 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선생은 “나는 대한의 개가 될지언정 오랑캐 일본의 신민은 되지 않겠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하여 선생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 받고 대구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일본 간수의 심한 구타와 가혹한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1920년 5월 14일 만 30세의 나이로 순국하고 말았다. 이에 선생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고, 선생의 묘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한편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지소마을에는 “3.1운동 의거 기념비”를 세워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

주요경력

고전면 3.1운동 및 하동장날 만세운동 주도
일제로부터 징역 8월을 언도 받고 복역 중 순직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1990년

- 정상정(鄭相正) -

. 생 물 : 1878 ~ 1920, 9

. 본관 : 연일

. 출생지 :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주요경력 : 고전 배드리장터 3.1만세운동 주도

일제에 의해 징역 2년 6월 복역 .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생애 활동】

본관은 연일連日이다. 1878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16일 선생은 성천리 지소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지역에서 동지 33인을 규합하여 <일신단>을 조직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제에 맞서 싸우자.”고 결의하였다. 일신단원 정재기 선생이 하동읍으로 가서 ‘독립선언서’를 가져오던 중 체포되었다. 이에 선생은 일제가 만세시위 계획을 눈치 채고 경계를 더욱 강화하자 거사일을 변경하였다. 선생을 비롯한 일신단원들은 만세시위를 배다리 장날로 정하고 지계를 지거나 농사용 모자를 쓴 장꾼으로 가장하여 시장으로 모여들었다.

마침내 박영묵 선생이 큰 태극기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가 오늘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만세를 삼창하니 정상정 선생을 비롯한 나머지 단원들과 장꾼들이 이에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니 그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군중들의 함성이 드높고 그 수가 점차 불어나자 일경과 왜 헌병 5명이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려하자 일신단 단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총과 칼을 빼앗고 군복을 벗긴 뒤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시위대는 총기를 빼앗고 병졸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열기가 점점 고조되었으나, 일제는 수비대를 강화하여 해산시켰다.

다음날 오전 일제는 헌병 20여 명, 일경 10여 명을 동원하여 총을 난사하며 지소마을로 들이닥쳤다. 이에 일신단은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뒷산으로 피신시킨 후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서 박영묵, 정상정, 이종의, 정의용 선생 등이 앞으로 나서며 이르기를 “어제 만세시위는 우리 4인이 주동이 되어서 한 일이니 우리를 체포하라.”며 스스로 포박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선생은 일제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정부는 선생의 뜻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지역의 주민들 역시 “3.1운동 의거 기념비”를 세워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 있다.

주요경력

고전면 3.1만세운동 주도

일제로부터 징역 2년6월 복역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1991년

- 이종인(李宗仁) -

. 생 물 : 1869 ~ 1944. 1

. 출생지 :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주요경력 : 고전 배드리 장터 3.1만세운동 주도

항일 <일신단> 조직. 일제에 의해 징역 2년6월 복역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생애 활동】

본관은 금구金溝이다. 1869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16일 선생은 성천리 지소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지역에서 동지 박영묵 선생과 함께 33인을 규합하여 <일신단>을 조직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제에 맞서 싸우자.”고 결의하였다. 일신단원 정재기 선생이 하동읍으로 가서 ‘독립선언서’를 가져오던 중 체포되었다. 이에 선생은 일제가 만세시위 계획을 눈치 채고 경계를 더욱 강화하자 거사일을 변경하였다. 선생을 비롯한 일신단원들은 만세시위를 배다리 장날로 정하고 지계를 지거나 농사용 모자를 쓴 장꾼으로 가장하여 시장으로 모여들었다.

마침내 박영묵 선생이 큰 태극기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가 오늘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만세를 삼창하니 이종인 선생을 비롯한 나머지 단원들과 장꾼들이 이에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니 그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군중들의 함성이 드높고 그 수가 점차 불어나자 일경과 왜 헌병 5명이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려하자 일신단 단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총과 칼을 빼앗고 군복을 벗긴 뒤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시위대는 총기를 빼앗고 병졸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열기가 점점 고조되었으나, 일제는 수비대를 강화하여 해산시켰다.

다음날 오전 일제는 헌병 20여 명, 일경 10여 명을 동원하여 총을 난사하며 지소마을로 들이닥쳤다. 이에 일신단은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뒷산으로 피신시킨 후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서 이종인 선생과 함께 박영묵, 정상정, 정의용 선생 등이 앞으로 나서며 이르기를 “어제 만세시위는 우리 4인이 주동이 되어서 한 일이니 우리를 체포하라.”며 스스로 포박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선생은 일제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정부는 선생의 뜻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지역의 주민들 역시 “3.1운동 의거 기념비”를 세워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 있다.

주요경력

항일단체 <일신단> 결성 주도

배드리 장터 만세시위 주도

일제에 의해 2년6개월 복역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1990년

- 정한효(鄭漢孝) -



- . 생몰 : 1933년~2021.12
- . 본관 : 진양 정씨
- . 상훈 : 제1회 성균관 유교대상
국제라이온스 무궁화 금장
성균관 45년 근속 공로장

【활동사항】

본관은 진양晉陽이다. 1933년 하동군 고전면에서 태어났다. 하동중학교를 졸업하고 한학에 심취하였다. 하동군 내 주조장, 남해 창선허동주조장 등을 인수하여 대표로 취임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자 하동 향교鄕校 출입을 시작하여 유가 경전과 선현들의 문집을 강독하였으며 시무와 서예 등을 익히며 선비로서의 교양을 쌓으며 유림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1981년 성균관 유도회 成均館 儒道會 하동지부장에 임명되면서부터 유림의 지도자 반열에 올랐으며, 국제라이온스 하동클럽에 가입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2년 성균관유도회 경남본부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하동향교의 보수를 계획하고 중건에 착수하였다. 그해 8월 성균관 전학典學으로 임명되었으며 하동향교 총효교실 강사로 위촉되었다. 1988년 11월 하동향교 전교 河東鄕校 典教로 선출되었고, 향교 중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지자체와 국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심지어는 사재출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한 소임을 완수해나가면서도 성균관 유학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1991년에는 향교 전교에 재선되었다. 1995년 하동향교 중건을 완수한 공로를 유림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동향교 창건 이후 최초로 <하동향교 중창 유공 현판>이 명륜당에 게시되었으며, 성균관 전의典儀로 임명되었다.

이후 하동군으로부터 향토문화교육원 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유도회 총본부 상임위원. 2007년, 2010년 연이어 하동향교 전교의 직책을 맡아 향교와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유교방송 개국준비위원. 성균관 부관장을 거쳐 2014년에는 수석부관장직에 오른다. 그 12월에는 서정기 성균관 관장의 유고로 성균관장 직무를 대행하였으며, 혼란에 빠진 성균관의 정상화를 위해 수습에 노력하였다. 하동 향교의 중건도 그렇거니와 우리 하동에서 성균관을 대표하는 수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큰 선비가 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선생의 노고와 헌신이 오늘날 하동의 자랑이자, 하동 유림의 복일 터이다.

주요경력

河東郡紙(1996년 刊) 편찬위원 집필위원. 하동향교 전교
성균관 전의. 하동 향토문화교육원장
유도회 총본부 상임위원
성균관 수석 부관장.
성균관장 직무대행
『하동향교지』 집필위원장

상훈

제1회 성균관 유교대상
국제라이온스 무궁화 금장
성균관45년 근속공로장

저서

『하동향교 강의집』 2014
『하동향교 강의집』 2015
『하동향교 진사생원과정 강의자료집』 2020

- 남호성 (南昊成) -



- 생년 : 1935년 4월10일
- 본관 : 의령
- 상훈 : 대통령 표창

【생애활동】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935년 4월10일에 하동군 고전면 전도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고전초, 진교중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부산 배정중고등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65년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남도산업국양정과, 수산청어업진흥국, 농림수산부, 농어촌진흥청비서관겸 서울사무소장 등 여러 국가부처근무의 경력을 쌓았고, 농협중앙회사료공장개설사무국 근무, 중앙회 감사관 실, 중앙회 하동군지부장 농협중앙회 부산 양곡 공판장 지부장등 등 농협중앙회의 중요 요직을 거쳤으며, 공군 교육사령부 업무협력 병영 내에 농협지점 설치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사령관의 공로표창을 받은 바가 있다. 농협중앙회 정년퇴임 후에는 하동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겸 의료보험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도 부산 서면 공판장에 '매시리 공급센터'를 개장하여 고향 하동지역의 농특산물인 매실, 녹차, 하동 청결미, 밤 등을 부산 경남지역에 판매, 공급로를 개척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홍보에 앞장섰다. 그 외에도 선생이 하동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하동읍성을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받고, 사적으로 등록하고 옛 모습으로 복원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하동읍성(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 151)

하동읍성(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51번지에 소재)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축조하여, 숙종 30년 (1704년)에 하동읍기가 현재의 하동으로 옮겨가면서 폐성이 되어 지금까지 300년 넘게 방치되어왔던 것이

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장군께서 백의종군하시면서 하동현청 별사에서 2일간 (1598.5.28~29) 유숙하셨으며, 당시의 현감 신진의 후대에 감사하다는 서찰의 내용을 난중일기에 적고 있다. 그리고 6.29일에 인근의 진주성이 함락되었고, 7월 초 왜병들이 이 성에 침입하여 약탈과 방화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1703년(숙종29)에 현 하동읍으로 읍기를 옮겨가기 전까지 530여 년(1172~1703)간 하동지역 8개 면을 관장했던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하지만 발굴 직전까지는 성 내부의 동쪽 지역에 20여 호의 민가가 있었고, 연못도 미나리밭처럼 방치되어있었다고 한다. 성벽을 이루고 있었던 돌들은 인근 주민들이 빼어가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사용하거나 디딤돌 등으로 썼고, 6.25때는 그 성벽의 돌을 빼서 경찰지서를 짓는데 사용하는 등 그로 인해 성벽은 거의 허물어지고, 중간중간 그 흔적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하동읍성이 경상남도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217호(1999년)로 지정되고, 사적 제453호(2004. 5. 31)로 등록되고 복원된 것은 오로지 남호성 선생의 집요한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7월에 향토사연구가인 김상구(金相九, 하동군 양보면)와 돌만의 사적인 자리에서 하동읍성 발굴제약이 있었는데 이에 남호성 선생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였고, 곧 바로 며칠 후 당시 고전면장이 김연석 면장을 찾아가 발굴에 대해 의논한 결과, 3인이 추진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하동읍성이 연고지인 선생이 추진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곧바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향토사연구가 김상구 위원은 고문으로 추대되어 성지의 지적 등 기초조사를 전담하였고, 섭외 등 대외활동은 김영언(金英彦)위원, 성지 등 정비는 정주룡(鄭周龍)위원 등 각자의 소임을 정한 후,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사업 추진 초. 중반기까지 일련의 과정, 즉 지역민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활동과, 문화재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 등,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대학 전문 교수를 수십 차례 방문하거나 초청하여 도움을 받고 접대를 하는 등의 일에서는 선생이 개인적인 사비를 지출해가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지 2년만인 1999년에 경상남도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됐고, 2004년 5. 30일 국가 문화재 사적 제453호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까지 120억 원이 복원사업에 투입되었고, 2021년 현재에도 복원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동읍성 복원사업이 완공되면 하동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체험의 관광지로 그 위상이 한층 더 새로워질 것이다.

사라져 가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들을 발굴하고 복원해 나가는 일에 한 개인이 관심을 갖고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호성 선생의 하동읍성 발굴과 복원에 대한 노력과 업적은 우리 역사에서 잊혀 있던 수백 년 역사를 되찾게 한 일이고, 멈춰진 물길을 터주어 다시금 흘러가게 해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경력

농협중앙회하동군지부장
농협중앙회부산양곡공판장 지부장
농협중앙회경남도지회소속 연구위원
농협중앙회 정년퇴임 (경남지회소속)
하동군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상훈

대통령 표창(1976년)